

한콘진, 프랑스서 6000만 달러 콘텐츠 수출

최대 영상 콘텐츠 마켓 ‘밍컴’
애니·예능 등 해외 배급계약
‘반지의 제왕’ 음향업체와 협업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종합영상 콘텐츠 마켓 ‘MIPCOM 2016’(이하 밍컴)에서 6000만 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액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지난달 17일부터 나흘 간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 KBS, MBC, SBS, CJ E&M 등 방송 관련 기업 21개사와 아이코닉스, 시너지미디어, 삼지애니메이션, 로이비주얼 등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 30개사 등 총 60개 국내기업이 참가했다.

MBC는 국내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쇼킹왕 루이’의 TV 방영권과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포맷을 태국에 판매했다.

SBS도 인기 예능 ‘런닝맨’을 태국에 판매하고, 마운틴 TV는 프랑스와 다큐멘터리 ‘하늘에서 본 한국’의 방영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출동! 슈퍼윙스’(퍼니플릭스), ‘주사위 요정 큐비쥬’(오로라월드), ‘파워배틀 와치카’(삼지애니메이션),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랑’(로코엔터테인먼트), ‘마법천자문’(지엔지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우수 콘텐츠의 판권 및 라이선싱과 관련해 프랑스, 인도네시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참가한 ‘밍컴 2016’에서 크리스피가 뉴질랜드 기업 POW!와 공동제작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스페인,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 수출 계약을 맺었다.

탁튼엔터프라이즈는 올해 초 ‘뽀족뽀족 포크가족’의 유튜브 배급계약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 행사에서 잔슨 미디어(Jan-son Media)와 애니메이션 ‘갤럭시 키즈’의 아마존 배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제작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 크리스피는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음향편집을 총괄한

뉴질랜드 대표 후반제작 기업 POW!와 공동제작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112만 달러 규모의 한국·중국·이탈리아·뉴질랜드 4개국 합작 애니메이션 TV시리즈 ‘몰리코스터 보이, 노리’의 공동제작을 추진하고 영여권 국가로의 배급을 위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00년부터 국내 콘텐츠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마켓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마켓 및 시장 트렌드, 수출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콘텐츠 쇼케이스, 네트워킹, 마케팅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은 지난 5년간 8.1%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연간 57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사업본부 김락균 본부장은 “국내 우수 콘텐츠의 해외진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달 27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강인규 나주시장, 장주일 혁신산단 대표이사과 네모이엔지 윤석진 대표 등 7개 기업 대표가 합동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7개 기업, 나주 혁신산단 합동 분양계약

입주기업 한전 105억 수주도

나주 혁신·신도산단이 에너지밸리 중심 산단으로 꾸준한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나주시는 3일 “최근 7개 기업 대표와 ‘혁신산단 입주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한전에 납품하는 좋은 사례가 있어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주에서 미래 100년의 성공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7개 기업 중 모터, 태양광설비 및 전동기 제조업체인 ㈜남원은 혁신산단에 6,910㎡ 규모로 이달 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3442㎡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준공한 혁신산단 1호 기업인 ㈜이우티이씨가 한전에서 제한 경쟁 방식으로 105억원 규모의 제품을

수주 받은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한전 연관기업들이 문의와 함께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분양 계약식에서 “혁신산단 입주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한전에 납품하는 좋은 사례가 있어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주에서 미래 100년의 성공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나주시는 전남도, ㈜혁신산단 등과 합동으로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매주 기업 방문과 산단 홍보를 통해 투자와 분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민서비스 발굴 포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김명룡·이하 KCA)은 최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정부3.0 혁신과제 발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정부3.0 중간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KCA가 추진중인 정부3.0 과제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 국민서비스 사례를 추가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장 주제로 임·직원과 과제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는 정부3.0 성과창출과 실행력 강화, 생활 속

혁신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정자치부 정부3.0 전문강사단 위원인 전남대 한순희 교수로부터 KCA가 추진 중인 중점과제에 대한 자료와 분사 전직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개방 맞춤형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김명룡 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반영해 정부3.0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KCA가 정부3.0 우수기관인 만큼 성과창출과 확산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PS 원자로검사, 국제인증 취득

한전KPS가 개발한 원자로검사 신기술이 미국, 스페인에 이어 3번째 국제인증을 취득했다.

한전KPS는 자사 기술연구원과 원자력정비기술센터가 2011년부터 5년에 걸친 연구개발과 1년여의 인증 과정을 거쳐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장비인 ‘스페이

스’(SPAcE) 국제인증 취득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한전KPS 관계자는 “국제인증 취득을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해외원전 원자로검사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최재호기자 lion@

aT ‘식품외식산업 대회’ 국내외 전문가 참가

농림축산식품부(농식부, 장관 김재수)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센터장 최희중)가 공동 주관한 ‘2017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Korea Food Outlook)가 3일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사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1부에 정책 토크콘서트, 2부 식품·외식·R&D 및 유통 분야 등 4개 세션별 전문 강연, 3부 세미나 및 상담회 순으로 총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관련업계 CEO와 최고 전문가들이 펼치는 토론과 강의, 세미나와 더불어 식품·외식산업의 현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 및 상담관과 같은 유용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1부에서는 ‘리더로부터 식품·외식산업의 길을 듣다’라는 주제로 식품산업 각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리더들이 패널로

참여해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했다.

특히 이어진 2부와 3부에서는 2017년 트렌드 전망을 발표하는 ‘2016-2017 소비트렌드(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와 김난도 교수)’와 ‘미리 보는 2017 외식트렌드(aT 외식진흥부 김서령 부장)’ 강연, ‘스타트업 기업 성공 전략 세미나(한국NPD개발원 김세운 수석연구원, 동원푸드 전종화 상무)’가 이어져 청중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대한민국 소비트렌드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난도 교수는 2017년 소비 키워드로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발표한 ‘치킨 런’(C.H.I.C.K.E.N, R.U.N)을 직접 소개하여 주목 받았으며, ‘미리보는 2017 외식트렌드’ 강연에서는 ‘나 홀로 열풍’, ‘반 외식의 다양화’, ‘Fast-Premium’, ‘모던한식의 리부팅’이 외식산업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편 부대행사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인기 있는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시식할 수 있도록 한 ‘글로벌 가공식품 트렌드관’, 해외 각지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 농식품을 전시한 ‘한국의 수출 히트상품 전시관’ 같은 특별 전시관에서는 국내외 식품·외식산업의 최신 제품이 선보였다. 함께 운영된 ‘식품 기술개발 홍보·상담관’

에서는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aT 여인홍 사장은 “이번 행사가 식품과 외식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정보 교류 및 트렌드를 선도하여 식품외식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 하도록 적극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획, 취재, 제작기간 1년 6개월, 우간다, 레바논 해외 로케이션

우간다와 레바논에서 내전과 기아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현지민들에게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들의 감동선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11월 17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천국이 찾아옵니다

최수종 & 최강희 내레이션 기획/제작, CBS 감독/프로듀서, 김동민 이주훈 출연, 김영희 김은혜 한성교 선교사 제공, 밀알복지재단 배급, CBS 199다미로

CBS 제작

수종 OBEDIENCE

11월 17일, 전국 CGV 대개봉! | 전체 관람가 | 관람문의 | CBS 시네마 (02-2650-7942)